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참된 안식으로의 초청의 말씀이다. 그 안식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인생

예수께서는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인류의 현재의 처지를 바르게 증거한다.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다.

성경은 이런 사실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증거한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을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창 3:16). 여자의 임신과 출산의 수고와 고통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창 3:17-19). 땅의 저주와, 남자의 평생의 땀 흘리는 수고와 육신의 죽음은 그의 범죄에 대한 징벌이다.

아담의 10세손인 노아의 부친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안식’이라는 뜻인 노아라고 지으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말하였다(창 5:29). 이 세상은 수고로이 일하는 세상, 곧 참 안식이 필요한 세상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의 인물로 보이는 욥은 구약성경 욥기에서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좋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샅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라고 말하였다(욥 7:1-3).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바로에게 “내 나그넷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넷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말했다(창 47:9). 야곱만 그런 생애를 살았겠는가. 사람의 한 평생은 험하고 수고로운 여정의 날들이다.

수백년 후에 모세는 시편 90편을 쓰면서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썼다(시 90:10).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실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인인 인생의 삶에 대해 “과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증거하였다(롬 3:16-17). 고생스런 삶, 평안이 없는 삶, 그리고 결국 노쇠함과 죽음에 이르는 삶이 인생이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사 48:22).

마 11:28,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인간에게는 무거운 짐이 많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산이 있는 부자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짐이 있다. 또 독신자는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마음의 짐도 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섬겨야 하는 짐, 남자는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는 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짐, 또 자녀들은 노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하는 짐이 있다. 더욱이,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오는 양심의 가책, 즉 죄책의 짐이 있다. 참으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다.

신적 구주이신 예수님의 초청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신적 구주이신 분의 초청의 말씀이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가르쳤다. 사람이 자신을 수련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물질적인 집착과 욕심을 버림으로 고뇌를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마호멧은 알라신을 잘 섬기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말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참 구주이시며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고 하셨다(사 45:6-7, 22).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은 자신이 신적 구주이심을 증거하신 것이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14:6에 보면, 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이며, 인간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바른 진리이며, 인간이 받아야 할 생명이시며, 또한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의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이시라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이시다. 그 사실은 그의 행하신 기적들과 부활을 통해 밝히 증거되었다. 그것들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밝히 증거되어 신약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증거하였다(행 4:12).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5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거하였다.

참 안식을 주심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참 안식을 약속하셨다. 그는 참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참 안식은 평안을 가리킨다. 그

것은 마음의 평안, 육신의 휴식과 건강, 물질적 필요의 공급, 환경적 안정과 평안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안식이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참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에게는 병고침이 없이는 참 안식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문제점을 실제로 해결해주셨다. 그러므로써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구주이심을 증거하셨다. 그는 신적 능력의 구주이시다.

성경에 의하면, 참 안식과 평안은 오직 죄씻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사 48:22). 세상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결과 인간은 수고와 고통, 불행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죄씻음을 통해 인간은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참 안식은 죄씻음을 통해서만 얻는다. 죄씻음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에 참 평안도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이다(엡 2:8-9). 참 평안은 구원의 복이다.

구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의 참 평안을 주신다.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요 14:1),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다(요 14:27).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는 신적 구주이신 예수님 밖에 없고 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다.

이 평안은 구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기원하였다(롬 1:7; 고전 1:3 등).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환경에도 평안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6-7에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였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신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16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라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썼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주님이시며 그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실 것이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

물론 세상에서의 안식은 아직 불완전하다. 우리는 마음의 참 안식을 누리지만 시시때때로 그것은 육신적 건강과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참 안식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누릴 것이다. 그때 우리는 충만한 평안, 완전한 평안,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천국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곳이 될 것이다.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다. 그것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현실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시다. 아직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기도한다.